제9장 종교



제 1 절 불교
제 2 절 천주교
제 3 절 개신교
제 4 절 기타 종교

제1절 불교

종교는 사회의 복합적인 문화현상이며 하나의 일관된 문화체계이자 생활양식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일이거나 믿음의 체계 '이다.

울산에도 다양한 형태의 종교가 있다. 원시신앙 형태인 민간신앙에서부터 개항기 이후 한국 종교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자생종교, 그리고 문화전통이 전혀 다른 동서양의 고전종교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인 것이다. 이들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각 종교단체들은 지역 곳곳에서 선교 및 신도확보에 나서고 있다. 선교의 장소도 산속과 시내 중심가 건물 등 다양한 곳에 있어 바쁜 현대인들의 마음을 불러들이고 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저마다 최고의 진리를 소유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개중에는 자기 종교만이 진정한 종교라는 종교진리관에 근거하여 상대의 종교를 사이비종교, 이단종교, 허위종교 등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울산사람들은 이들 종교에 앞서 자연을 숭배하고 신앙했다. 자연을 생명이 살아 약동하는 힘의 원천이자 숭배의 대상으로 봤다. 그리고 인물은 산천의 정기를 타고 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자연의 정기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집터를 잡고 산천을 숭배했다. 마을에는 당신(堂神)이라고 해서 마을을 보살펴 주는 신을 모셨다. 국수당은 산 정상에, 산신당은 대개 산 중턱에 마련했다. 서낭당은 산 아랫자락에 두어 부정을 금하는 성역으로 삼았다.

울주군에 남아 있는 제당이나 방어진 일대 동해안의 별신굿 역시 제사적 성격과 신앙적 성격의 산물이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고사를 지내 복을 빌고 천지신명께 감사드렸다.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이사를 할 때는 집안의 불안과 질병 등을 퇴치하기 위해 안택(安宅)을 빌었다. 길을 가다가도 장승이나 서낭당을 만나면 기도를 올렸다.

울산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 속에서 이뤄지는 생활은 그 자체가 신앙과 깊숙하게 닿아 있다. 지금은 신앙의식 중 상당수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울주군 일부 지역이나 강동지역에는 여전히 그 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울산지역의 여타 종교들과 함께 다종교 사회를 더욱 복잡하면서도 풍성하게 하고 있다.

울산시가 2000년도 종교행정 및 각종 통계자료에 활용키 위해 파악한' 지역내 종교단체 현황(1999년 12월 31일) '에 따르면 울산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기타 종교 등 교당수가 모두 688개소이다. 교직자수는 2,414명, 신도수는 24만 5,229명으로 조사됐다.

울산지역 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기타 종교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울산지역 종교 현황

구 분	불 교	기독교	천주교	유 교	기타 종교
교당수	223	428	19	1	17
교직자수	415	879	66	5	1,049
신도수	118,303	69,306	49,914	750	6,956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표 2> 울산지역 구·군별 종교단체 현황

1999년 12월 31

구 분	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교당수	688	133	152	104	97	202
교직자수	2,414	1,304	309	205	145	451
신도수	245,229	46,763	84,278	44,717	23,575	45,896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1. 울산의 불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며, 반야실상의 도리를 일깨워 주는 진리생명의 종교이다. 불교는 사람이 태어나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괴로움을 깨닫고 마침내 그것들로부터 해탈해 열반에 이르는 것을 궁극적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울산의 불교는 신라의 불교와 그 맥이 닿아 있다. 울산은 신라의 변방으로서 신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다. 불교 역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영향을 정통으로 이어받았다. 따라서 신라불교를 살펴보는 것이 울산불교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제19대 눌지왕(427년 457년) 때이다. 고구려의 스님 묵호자가 일선군(一善郡) -지금의 구미 선산군(善山郡) -에 이르러 모례(毛禮)의 집에 굴을 만들고 체류했다고 한다. 선산군은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지역으로 이 통로를 통해 초기 포교승려들이 잠입해 들어와 신라에서 불교를 공인 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계속했다.

소지왕(479년 499년)때에는 아도화상이 다시 일선군 모례의 집에 왔다가 수년 후에 죽었는데, 그 시자(侍子) 3인이 경율(經律)을 강독하며 포교활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기록에서 알 수 있듯 묵호자와 아도화상은 당시 불도(佛道)의 목적을 위해 목

숨을 걸고 신라에 들어오긴 했으나 불교를 전파하는데는 실패했다.

신라에서 불교가 뿌리내리기 어려웠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리적으로 외진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고구려나 백제보다 민간 신앙을 더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당시만 해도 초기의 6부장과 같은 강력한 지방 호족세력이 남아 있어 왕실의 힘을 견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교를 공인하려는 왕실과 이를 배척하려는 지방 호족간의 갈등으로 해서 불교 포교는 도처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킨 사건이 이차돈의 순교(殉教)이다. 법흥왕 14년(527년)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배척하던 당시 귀족세력을 누르고 불교의 공인을 공식 선포했다. 출가는 물론 신교(信教)도 자유롭게 허락이 됐다. 이로써 신라는 국가 차원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왕실불교로서의 성격도 강조할 수 있게 됐다. 신라에 불교가 전래된 지 100년 만에 이뤄진 변화였다. 그 후 신라는 왕실사찰로서 황룡사를 창건하고 불교의 권위를 빌려 신분적 권위를 한층 강화시켰다. 불교가 지배 종교가 되면서 고대 제천의례 형식으로 행해지던 각종 국가의례들도 점차 불교의식으로 교체돼 수용됐다.

통일신라시대로 넘어오면서 왕족 중심의 불교가 지방으로 확산됐다. 그러자 절을 짓고 불교를 숭배하는 풍조가 크게 늘어났다. 양산 통도사와 부산 범어사, 합천 해인사 등 지금까지 남아 있는 신라의 사찰들은 당시의 불교문화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이다. 통도사는 신라 27대 선덕여왕이 지은 절로서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의 사리와 금란가사(金欄袈裟)가 봉안돼 있다. 경주 황룡사를 우리 나라 호국사찰의 본산이라고 한다면 양산 통도사는 우리 나라 호법사찰의 본산이라 할 수 있다. 신라시대에 중들에게 계율을 가르쳐 불교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던 곳이 양산 통도사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부처를 생각하여 극락정토(極樂淨土)에 간다는 타방정토 사상이 유행했다. 당시 불교는 경주 중심의 불교가 아니라, 쉽고 간단한 종교로서 울산 등 지방으로 널리 퍼져나가 민중의 종교로 자리잡아 갔다.

이렇듯 신라불교가 민중화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불교신앙과 의례들이 정착됐다. 초기에는 정토와 미륵신앙과 관련된 의례가, 후기에는 밀교(密教)와 선(禪)이 확산되면서 염불, 주송, 참선 등의 불교의례가 등장했다. 그리하여 불교의 토착의례인 팔관회, 국가의례인 백고좌회, 원광의 점찰법회, 각종 기원과 주문을 사용하는 밀교의례들이 정착했다. 여기에 당의 수련도교와 선종의 유입으로 의례는 일반 대중 속까지 파고들었다.

이러한 신라불교는 그 특성을 문화수용의 포용성, 위국애민(爲國愛民)의 호국성, 통불교적(通佛敎的) 원융성(圓融性), 선사상(禪思想)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화수용의 포용성은 신라불의 토착화 과정에서 불교와 고유 문화와의 상호교섭 관계를 말한다. 주목할 것은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이후 외래 종교인 불교와 한국 고유 문화가 갈등 대립보다 조화와 평화 속에서 만나 대중화 됐다는 점이다. 위국애민의 호국성은 현재 한국불교의 특성에 다름 아니다.

신라불교는 정신적 이념과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항상 국가발전과 민족의 안위까지 생각했다. 통불교적 원융성은 신라불교의 또 다른 특성이다. 신라불교는 인도불교나 중국불교 등과 비교할 때 그 전개과정이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분명 다르다. 시원(始原)으로서의 원칙적 성격을 지닌 인도불교나 종파적 특성으로 인해 분산된 중국불교와는 달리 신라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모두 융합하는 통불교(通佛敎)를 지향해 왔다. 따라서 그 속에는 사상적 대립과 갈등이 극복되고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룬 원융성이 짙게 배어 있다. 신라불교는 이밖에 현생의 복을 비는 구복적 성격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신라의 불교는 고려로 넘어오면서 음양과 지리, 도참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종교의례 역시 불교적이긴 했지만 혼합된 성격을 띄고 있었다. 고승을 왕사로 모시고 승과시험을 실시해 인재를 뽑고, 지방에까지 절을 지었다. 왕실과 귀족과 민간에서 토지, 재물, 곡물, 그 밖의 것들을 시주함에 따라 경상도 지방에도 새로운 절들이 많이 세워졌다. 불교는 토속신앙을 흡수하면서 민중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되고 조선왕조가 들어서면서 불교는 급진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조선 초기 유불(儒佛)간의 공존시대를 지나 16세기에 이르자 제종교를 음사(淫祠)라 하여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됐던 것이다. 이 때 제사권을 중심으로 주자가례가 서서히 보급되고 확산되면서 불교적인 의식들도 점차 민간화 되어 갔다.

지방마다 유서 깊은 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절은 없앴고, 절에 딸린 토지와 노비도 몰수했다. 많은 중들을 환속시키고, 중이 되는 것도 제한했다. 당시만 해도 정신적 지도자 위치에 있던 중이 평민 아래로 전락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불교활동을 더욱 금하였다. 중들은 사회 교화의 기능을 잃고 깊은 산에 은거하면서 일반 사회와 거의 단절된 채로 자립생활을 했다. 울산 지역의 불교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

조선왕조 말기 일본이 침략하면서 불교계는 다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너무 쇠잔하여 재기하기가 어려웠다. 다만 경남의 세 본산인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는 절 재산의 보관과 감독을 강화하는 사찰령의 뒷받

침을 받아 그나마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울산의 불교 역시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재공양 중심의 불교를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나 신라불교의 특성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간직해 오고 있다. 신흥사나 태화사 등에서 확인되는 호국불교 정신이나 기복적, 구복적 신앙의식이 지역 불자들의 마음속에 면면히 살아있는 것이다. 신라의 변방이면서 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울산만의 독특한 불교문화라 할 수 있다.

울산의 불교는 이와 함께 여타 종교나 신앙적 요소들과도 잘 어울려 나름대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져 가고 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한국의 전통적 신앙의식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고대 제천의례에서 출발하여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그 전통을 이어온 동제(洞祭)나 주문을 주로 하는 밀교적 요소, 수련적인 전통을 가진 선교적 요소, 사자천도를 위한 불교적 재공양 의례, 민간에 확산된 관혼상제, 산악숭배, 용신앙, 조상숭배 같은 것과도 잘 융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교신앙 외에 관음신앙, 지장신앙 등의 보살신앙, 아미타신앙, 미륵신앙 등의 정토신앙, 다라니신앙 등의 밀교신앙, 그리고 도교적 성격이 강한 칠성신앙과 산신신앙 등의 다양한 불교신앙이 파생되어 일반 민중 속을 파고 들고있다. 이중 정토신앙에서의 염불과 서원의식은 오래 전부터 민중들의 종교의례의 중심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 다라니신앙에서는 주문과 진언이 동일시되면서 천수다라니 등 다라니를 독송하는 신앙이 이후 의례문화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또 칠성신앙과 특성신앙, 산신신앙, 용신앙등 고유신앙을 불교적으로 수용하면서 토착화된 불교의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울산지역 내 불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울산지역 불교 현황

1999년 12월 31일

구 분	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교당수	223	36	14	19	40	114
교직수	415	66	36	30	50	233
신도수	118,303	15,730	43,332	11,711	13,767	33,763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2. 울산의 사찰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식 승인한 신라는 불교를 통한 강력한 왕권강화를 위해 사찰건립에 착수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신라 최초의 사찰이 흥륜사 (544년)이

다. 법흥왕 21년(534년)에 불사를 시작하여 24대 진흥왕 5년(544년)에 완공됐다.

그 후로 영흥사, 황룡사(皇龍寺), 기원사, 실제사, 동축사(東竺寺) 등의 사찰이 창건됐다. 26대 진평왕과 27대 선덕여왕 대에 이르러서는 창사활동이 한층 더 활발하게 진행됐다. 사찰은 대부분이 왕도(王都) 경주에 건립됐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이미 40여 개소에 이르렀다.

이 중 황룡사는 신라 최대의 사찰로서 신라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삼국유사 권 제3 ‘ 황룡사 장육조 ’에는 황룡사의 장륙존상(丈六尊像) 주성(鑄成)에 관한 설화와 9층목탑 건립에 관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설화는 울산의 동축사(東竺寺)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장륙존상 주성에 관한 설화는 다음과 같다.

남해에 큰 배가 닿았다. 그 배속에 “ 서축(西竺)의 아육왕이 황철 5만 7,000근과 황금 3만근을 모아 석가삼존상을 주성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해 이를 배에 실어 석가삼존상의 모형과 같이 띄우니 인연이 닿는 나라에서 장륙존상을 주성하기를 축원한다 ”는 내용의 글과 함께 황철과 황금 모형이 실려 있었다. 이에 이를 왕도 경주에 옮겨 진흥왕 35년 3월에 장륙존상을 주조해 황룡사 금당에 안치하고 그 모형은 동축사(東竺寺)에 안치했다. 그후 황룡사 장육존상이 이루어진 뒤에 동축사의 삼존상도 황룡사로 옮겨갔다.

동축사(東竺寺)는 울산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찰에 속한다. ‘ 동축 ’의 ‘ 축(竺) ’은 천축(인도)을 의미하는 글자로 불교의 발원지 서축에 대비되는 동쪽의 불교 번성지를 가리키고 있다.

9층목탑에 대한 설화 역시 삼국유사 황룡사 9층탑조에 실려 있다. 27대 선덕여왕 12년(643년)에 당나라에서 유학하던 자장(慈藏)이 당의 태화지(太和池) 옆을 지나는데 신인(神人)이 나타나“ 황룡사에 9층탑을 건립하면 이웃나라들이 항복하고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 ”라고 했다. 또한 “ 경기 남쪽 언덕에 절(태화사 太和寺) 한 채를 지어 자신의 복을 빌어주면 그 은덕에 보답하겠다 ”고 했다.

자장은 그 후 귀국하여 9층목탑의 건립을 왕에게 건의하고, 왕은 백제의 공장(工匠) 아비지를 초청해 9층목탑을 완성케 했다.

자장이 ‘ 경기 남쪽 언덕에 지은 절 ’인 ‘ 태화사(太和寺) ’에 대한 기록 역시 삼국유사 황룡사 9층탑조에 실려 있다. 신라 27대 선덕여왕 5년(636년)에 중국에 유학한 자장법사가 오대산에 머물던 어느 날 태화지(太和池) 옆을 지나고 있었다.

갑자기 신인(神人, 자장 정률조에는 용으로 나옴)이 나타나 “ 어찌하여 이 곳에 왔습니까 ”하고 물었다. 자장이 “ 부처에 이르는 길을 구하러 왔습니다 ”고 대답했다. 신인이 자장에게 절하고 나서 “ 그대의 나라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소 ”하고 물었다. 자

장이 다시 " 우리 나라는 북으로 말갈에 연하고 남으로는 왜국과 이어졌으며,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가 번갈아 국경을 범하는 등 이웃의 침입이 잦습니다. 이것이 걱정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여기에 신인이" 지금 그대의 나라는 여자를 왕으로 삼아 덕은 있어도 위엄이 없어 이웃나라에서 침략을 하고 있으니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시오 "했다. 자장이 물었다. " 고국으로 돌아가 어떻게 이익 되는 일을 해야 합니까 "

신인이 대답했다." 황룡사의 호법룡이 나의 큰아들입니다. 범왕의 명령을 받아 그 절에 머물고 있으니 본국에 돌아가거든 절 안에다 9층탑을 세우시오. 그러면 이웃나라도 항복을 하고 왕업의 길이 편할 것입니다. 탑을 세운 뒤에는 팔관회를 열고 죄인을 용서하면 왜적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 신인은 이어서 " 자신을 위해 경기 남쪽 언덕에 절 한 채를 지어 복을 빌어주면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 "고 했다. 신인은 말을 마치자 자장에게 옥을 바치고 이내 사라졌다.

정관 17년 계묘년(643) 자장은 불경, 불상, 가사, 폐백 등을 가지고 돌아와 그 간의 사실을 왕에게 아뢰었다. 그리고 오대산에서 가져온 사리 100알을 탑 기둥 속과 통도사 계단, 경기 남쪽의 태화사 탑에다 각각 나누어 모셨다.

울산의 태화사는 자장이 양산에 창건한 통도사와 함께 창건 당시만 해도 규모가 대단했다고 한다. 신흥사와 함께 호국불교를 지향했으며, 나라가 위급할 때 승병이 되어 지역과 나라를 구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신라의 사찰 건립은 삼국통일 후에도 계속됐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 나타나고 있는 사찰의 명칭만도 100개가 넘는다. 신라가 사찰을 창간하는 연유는 창간 연기와 사적 설화 등을 감안할 때 대략 몇 개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교가 공인된 후 얼마간은 불교홍법(佛敎弘法)을 위해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한 전후에는 국가 수호를 위해서 사찰을 세웠다. 8세기에 들어서는 조상이나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사찰을 세웠다. 그러나 신라의 왕성한 창사활동도 8세기 말경에 이르면서 시들해졌다. 지나친 사찰 건립으로 국력이 눈에 띄게 소모되고 민생이 피폐해졌기 때문이다. 40대 애장왕 7년(806년) 3월에는 왕의 하교(下敎)로 새로운 불사 건립을 금하고, 금수(錦繡)로 불사를 꾸미거나 금은으로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드는 일도 못하게 했다.

삼국유사에 언급돼 있듯 동축사(東竺寺)와 태화사(太和寺)는 울산에 위치한 신라의 사찰이다. 이들은 운흥사(雲興寺), 신흥사(新興寺), 석남사(石南寺), 영취사(靈鷲寺), 망해사(望海寺) 등과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지역 불교문화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월봉사(月峰寺), 백양사(白楊寺), 옥천암(玉泉庵), 월정사(月亭

寺), 문수사(文殊寺), 간월사(肝月寺), 은을암(隱乙庵) 등도 역사가 깊어 창건과 관련한 전설 등이 전해져 오고 있다.

이 중 태화사, 망해사, 간월사, 운흥사 등은 사찰이 완전 폐사됐거나 폐사된 것을 후에 규모를 축소해 새로 지었다. 영축사의 경우는 탑의 일부만 해체된 채 논바닥에 남아 있다.

3. 울산의 불교종단과 소속사찰

현재 한국에는 대한불교(이하 생략)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진언종, 불입종, 법화종, 일승종, 천태종, 원효종, 화엄종, 총화종, 법상종, 천화불교, 미륵종, 정토종, 용화종, 보문종 등 18개 종단과 일붕선교종 등 9개의 신흥종단이 있다. 이 중 조계종이 가장 규모가 크며, 태고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울산지역의 사찰들도 대부분이 이들 18개 종단이나 신흥종단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돼 있다. 지역 내 불교와 관련된 종단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대한 법화종, 일승종, 총화종, 원효종, 한국법화종, 진각종, 진언종 정토종 등이다.


백양사

조계종 사찰의 경우 대부분이 양산 통도사의 말사(末寺)로 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울산광역시 사원연합회에 등록돼 있는 사찰의 수는 29개이다. 지역 내 불교사찰 중 울산시에서 관리중인 전통사찰은 백양사(중구 성안동 819), 해남사(중구 북정동 118), 관음사(중구 태화동 404), 동축사(동구 동부동 565), 월봉사(동구 화정동 60), 옥천암(북구 연암동 50), 신흥사(북구 대안동 739), 석남사(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1064), 내원암(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321), 문수사(울주군 청량면 율리 342) 등 10개소로 모두 조계종 소속이다.

울산지역내 각 구 · 군의 종단별 사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울산지역 구 · 군의 종단별 불교 현황

구 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구 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계	36	14	19	40	114	대한법화종	2		1	3	8

구 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구 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조계종	12	7	7	12	45	한국법화종					5
태고종	8	2	7	4	17	진각종	1				
천태종	2	1	1	6	3	진언종	1				
일승종	2	1	1	1	1	총화종					
원효종	3	1		6	10	기타	5	2	2	8	24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표 5> 울산지역 조계종(曹溪宗) 현황

사 찰	주 소	사 찰	주 소
관음사	중구태화동404	성불사	울주군서생면신암리325
백양사	중구성안동819	용화사	울주군상북면천전리115
약사암	중구학성동140	은을암	울주군범서읍척과리산152
청룡암	중구성안동302	굴암사	울주군언양읍송대리397-1
해남사	중구북정동118	밀봉암	울주군상북면양등리734
금강선원	중구태화동466	용안사	울주군온산읍상해
남산사	남구신정1동109-9	나은사	울주군청량면덕하리955-2
학성선원	남구신정1동	동암사	울주군두동면천전리산128
보현사	남구야음3동산157-8	선암사	울주군범서읍구영리
정토사	남구옥동803-5	성담사	울주군두서면인보리산1
극락사	남구야음2동793-6	홍도암	울주군온양읍남창리300
광명사	남구무거동1005-7	대덕사	울주군온양읍방도리
삼용사	남구신정4동 884-36	백련암	울주군두서면인보리산22
용안사포교원	남구신정4동 1095-5	선약사	울주군언양읍송대리339
동축사	동구동부동565	청송사	울주군청량면율리
등룡사	동구일산동91	고경사	울주군서생면명산리77-23
법륜사	동구전하1동550-25	인성암	울주군서생면678
월봉사	동구화정동60	관음사	울주군서생면화산리195-8
자광사	동구서부동482-109	인성암	울주군서생면서생리산678
공덕사	동구전하동549-19	굴암사	울주군언양읍송대리산397-11
원각사	동구방어동산308번지	불성암	울주군서생면위양리산91
신흥사	북구대안동739	염불사	울주군서생면고산리산104-1
옥천암	북구연암동50	효도암	울주군서생면내광리741
도솔암	북구화봉동287-3309	청송사	울주군청량면율리1212
내원암	울주군온양읍운화리1312	연지암	울주군곡천리62
문수사	울주군청량면율리산342	용화사	울주군상북면천전리118
석남사	울주군상북면덕현리1064	고헌사	울주군상북면궁근정리2-1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표 6> 울산지역 태고종(太古宗) 현황

사 찰	주 소	사 찰	주 소
환생사	중구성안동179	보덕사	울주군상북면
금용사	중구우정동619	고헌사	울주군상북면궁근정리2-1
성암사	중구유곡동292	극락암	울주군서생면위양리막곡628
학수암	남구여천동36-9	봉선사	울주군서생면화산리195-8
극락사	남구야음동793-6	화장사	울주군언양읍송대리339
옥룡사	남구옥동646	영복암	울주군언양읍다개리959
관음사	동구방어동479-14	반야사	울주군온산읍185
해운암	동구방어동55-3	금정사	울주군온양읍삼강리신기
월정사	동구화정동543	채운사	울주군웅촌면곡천리59
봉호사	동구주전동747	연지암	울주군웅촌면곡천리산45
도곡사	북구농소읍창평리62-2	관음사	울주군웅촌면고연리205
용왕사	북구호계동38	운흥사	울주군웅촌면고현리1699-1
연등사	북구효문동369-2	망해사	울주군청량면율리212
보현사	울주군두서면미호리110	대천암	울주군청량면상남리
공부암	울주군범서읍중리산45	보광수도원	울주군청량면율리323-1
용암사	울주군삼남면조일리산420	화림사	울주군삼남면교동리489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표 7> 울산지역 천태종(天台宗) 현황

사 찰	주 소	사 찰	주 소
모은사	중구북정동247	천만사	북구달천동739
정심수도원	중구우정동552	선광사	북구천곡동산17
정광사	남구무거1동	보은정사	북구천곡동산101
월봉사	남구신정동1566	구암사	울주군온산읍삼평리630
남장사	동구서부동385	양덕사	울주군온양읍어음리342
석불사	북구강동동어물리금천	청암사	울주군삼남면교동리산111
송림정사	북구무룡동산164	청암사	울주군삼남면교동리489
불선암	북구농소읍상안18	구암사	울주군온양읍삼평리산96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표 8> 울산지역 법화종(法華宗) 현황

사 찰	주 소	사 찰	주 소
도불사	중구북정동219	용주암	울주군상북면이천리303
연화사	중구우정동282-40	극락암	울주군서생면위양리산94
화봉사	동구방어동문현지구113B	금선사	울주군언양읍송대리328
등용사	동구일산동913	봉덕사	울주군온산읍우봉리204-1

사 찰	주 소	사 찰	주 소
강남사	북구강동동정자리609	종수암	울주군온양읍삼평리산96
벽선암	북구상안동651	보명사	울주군온양읍내광리
동남사	북구대안동598	장엄사	울주군웅촌면곡천리421
석문암	울주군두서면활천리산18	성원사	울주군웅촌면검단리123
석문사	울주군두서면활천리산18	은혜사	울주군웅촌면대복리164
석불사	울주군삼동면하잠리838-1	약수암	울주군온양읍외광리708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표 9> 울산지역 원효종(元曉宗) 현황

사 찰	주 소	사 찰	주 소
용신정사	중구교동66-1	황수사	울주군두서면서하리518
원각사	중구염포동산211	보현사	울주군두서면미호리산110
학성사	중구학성동392	목련암	울주군두서면인보리508-3
신선사	남구야음동산15	법성성사	울주군온양읍남창리300
보리암	남구선암동산34-1	금정사	울주군온양읍삼광리산52
백련사	북구연암동547	오복암	울주군웅촌면오복리566-3
천안사	북구정자동93	포암사	울주군웅촌면대대리851-1
호봉사	북구농소읍호계동37	미륵사	울주군웅촌면곡천리670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표 10> 울산지역 기타 종단의 현황

종 단	사 찰	주 소
미륵종	석불사	북구농소읍중산리이화741
	광덕사	울주군온산읍덕신리덕산
	태봉사	울주군온양읍삼광리608
총화종	불성사	울주군온산읍강양리하회
	성불사	울주군웅촌면대복리528
진언종	우정진광원	중구우정동199-6
진각종	아축신임당	중구학성동327-1
일승종	법승사	중구복산동185-17
	성불사	중구북정동192
	경원사	동구전하1동758-10
	선암암	동구동부동
	충효사	울주군두동면만화리223
불입종	벽운암	울주군두서면내와리507-1
	백련암	울주군상북면이천리794
	대덕사	울주군상북면거리867
	태봉사	울주군온양읍삼광리665-5

종 단	사 찰	주 소
선학원	성불선원	중구양정동산15
	성불선원	울주군서생면신암리869
	용안선원	울주군온산읍삼평리산239
	염불선원	울주군온양읍외고산
일봉선원	성원사	울주군웅촌면검단리120-3
관음종	관음사	남구상개동산19-1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4. 울산의 불교의례와 의식[1)]

울산의 사찰에서 행해지는 불교의례는 대체로 일상신앙의례, 영혼천도의례, 종교력에 따른 의례, 세시풍속의례, 소재신앙의례, 기타 불공신앙의례 등이 있다.

일상신앙의례는 불교신앙이 행하는 조석예불을 말한다. 영혼천도의례는 민속불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십구재, 수륙재, 예수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종교력에 따른 의례에는 석가의 출생, 출가, 성도, 열반일 등의 불교 사대명절이 속하며, 세시풍속의례는 우란분절 등이 있다. 소재신앙의례는 각종 재앙을 소멸하기 위한 의례이다. 기타 불공신앙의례는 기도의례로 특정한 서원을 하고 그에 따른 공덕을 쌓음으로써 원망을 처리하려는 신앙의례이다. 신수불공과 제수불공이 여기에 속한다. 이밖에 정기의례로는 관음재일, 지장재일 등의 신앙의례가 있고, 비정기적인 신앙의례로는 방생재가 있다.

일상신앙(정기)의례의 경우 정기법회와 각종 재일(齋日)법회가 있다. 정기법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매월 음력 초하루(1일), 혹은 보름(15일)에 열리는 전통적인 법회와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특정요일에 열리는 법회가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전통사찰과 지방 농어촌 지역에서 시행되고 후자는 도심포교당 및 도심지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재일(齋日)은 불교인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정진일로 6재일(六齋日, 매월 8, 14, 15, 23, 29, 30일) 혹은 10재일에서 기인했다. 요즘에는 지장재일(매월 음력 18일)과 관음재일(매월 음력 24일)만이 시행되고 있고, 드물게는 약사재일(매월 음력 8일)이 시행되는 곳도 있다.

불교에서는 종교력에 따른 의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중 4가지 주요사건

1) 문화체육부, 1996,『한국종교의 의식과 예절』.

(출생, 출가, 성도, 열반)을 4대 명절로 기리고 있다. 여기에 우란분절(백중)을 보태어 5대 명절로 꼽기도 한다. 4대 명절 중 초파일과 성도절, 열반절에는 관불회, 성도회, 열반회라는 각기 독특한 의례를 거행하고 있다.

• 초파일 법회 : 4월 초파일(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 날을 축하하는 의미로 의식을 행한다. 탄생불을 불단에 모셔 놓고 그 불상에 물을 쏟아 부으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한다.

• 성도절 법회 : 부처님의 성도를 기념하여 개최하는 법회이다. 특히 석가모니 부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대각(大覺)을 이룬 음력 12월 8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서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철야정진을 한다.

• 열반절 법회 :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길이 추모하고 열반을 기념하는 법회로서 음력 2월 15일에 법요의식을 행하고 있다.

<신춘희,‘ 울산예술 ’편집장>

제2절 천주교

1. 울산의 천주교

천주교는 우주만물의 근원을 이루신 창조주 유일신을 계시를 통하여 믿는 종교이다. 따라서 그 근원이신 힘, 전능하신 힘을 지닌 절대자를 하느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있다.

천주교가 우리 나라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승훈이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영세한 1784년이다. 물론 천주교가 들어온 것은 그 훨씬 이전이다.

천주교는 이승훈이 영세한 그 이듬해(1785년)에 을사추조적발사건이 터지면서 박해의 길로 들어선다. 당시 사건은 서울 명동에 있는 김범우(토마스) 집에서 종교집회를 갖던 중 관헌들이 급습해 집회자들을 체포했던 사건이다. 그때 10여 명이 체포됐지만 대부분이 양반계급이라 풀려나고 중인이었던 집주인 김범우만 귀양을 갔다. 이 사건은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우리 나라 천주교회에 가해진 최초의 박해사건이다.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이 외에도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신해박해(1791년), 신유박해(1801년), 기해박해(1839년), 병오박해(1846년), 병인박해(1866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모진 박해 속에서도 천진암과 주어사의 강습회 등을 통해 선교사 없이 이 땅에 천주교 신앙을 들어오게 한 하느님의 은총과 우리 민족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의는 결코 꺼지지 않았다. 1795년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1831년에는 로마로부터 조선교구가 설정되고, 1836년과 그 이듬해에는 불란서인 모방 신부와 샤스땅 신부가 입국하였다. 모방 신부는 한국인 성직자 양성에 관심을 가져 김대건(안드레아), 최양업(토마스), 최방제를 뽑아 마카오로 보내 신학공부를 시켰다. 그 후 김대건은 한국 최초의 신부, 최양업은 두 번째 신부가 됐다. 1833년 불란서인 범주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왔다.

이러한 발전 속에서도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일제시대에도 초기에는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듯 했으나 곧 비열한 박해가 시작됐다. 이런 계속되는 박해 중에서도 천주교회는 굳건히 살아남았고 오늘날에 와서도 교세는 날로 확장되고 있다.

조선시대 경상도지방은 유학이 발달한 곳으로 외래 사상이나 이념이 수용되기 힘든 지방색이 강한 곳이었다. 그러나 신유박해(1801년)의 영향으로 타지방에서 살아남은 신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경상도의 안동, 영양, 청송, 진보 등 여러 곳으로

이주했다. 이들은 경상도지역으로 귀양을 온 강이문(언양,1801년), 이학규(김해, 1801년), 신흥권(고성,1801년), 김노(진해,1801년), 이차운(거제,1801년), 정약용(장기,1801년) 등의 유배자들과 함께 이 지역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다. 이 같은 내용은 을해박해(1815년), 정해박해(1827년)와 관련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타지역의 박해로 피신해 온 신자들이 경상도 산간지방으로 이주함으로써 복음의 씨앗이 경상도에 뿌려졌다는 가설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무튼 울산지역(언양)에서도 신유박해의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쳤다. 그 결과 이 지방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전파에 힘쓰던 이 지역의 첫 신자 오한우(베드로)가 박해를 피해 다니다가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계지점에서 체포돼 순교했다. 오한우가 순교함에 따라 남겨진 그의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김교희(프란치스코) 가정은 언양에서 조금 떨어진 내간월 밑의 불당골로 피난을 갔다. 내간월에서 최초의 새로운 신자촌이 형성된 것이다.

신유박해 때 언양으로 귀양을 온 신자도 있다. 주문모 신부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한 강이문이다. 그는 곧 탑곡으로 옮겨졌다. 그 후 탑곡 인근에도 새로운 교우촌이 형성됐다. 이렇게 해 신유박해 후 언양지방에는 내간월 불당골과 탑곡, 상선필(예씨골) 등 세 곳에서 신앙공동체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농사를 짓거나 옹기와 숯을 구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을해박해를 전후해서도 신자들이 언양지역으로 피신해 들어왔다. 이들은 상선필을 거쳐 내간월 불당골에 정착했다. 이렇게 되자 언양지역의 신앙공동체는 더욱 커졌다.

정해년(1827년)에 접어들자 전라도에서 신자들에 대한 박해(정해박해)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여파가 경상도 북부지역을 거쳐 경상도 전 지역으로 확산됐다. 간월 교우촌 역시 박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모든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죽림이나 안살티, 두서, 두동 및 멀리 청도 구룡과 경산 자인골로 뿔뿔이 흩어져 피난을 갔다. 언양지방의 일부신자의 경우 친척이나 다른 외교인의 밀고로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다. 병인년(1866년)에 접어들면서 다시 박해(병인박해)가 시작돼 그 해 9월 병인양요로 인해 경상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순교했다.

1871년 신미양요로 다시 박해가 시작됐다. 7년간 계속된 이 박해는 1873년 대원군이 정계에서 은퇴함으로써 비로소 끝나게 됐다. 그동안 8,000명 2만 명에 이르는 천주교 신자가 순교했다.

경신박해 때 잡혔다가 풀려난 허인백(야고보)은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김종륜(루가), 이양등(베드로)과 함께 죽림공소를 거쳐 범굴에 피신해 있다가 1868년 5월 경주 진영으로 끌려가 8월 14일 울산 장대에서 모두 함께 순교했다. 언양 율동(청량면

율리)에 살던 이기수 형제도 죽림으로 피난을 갔다가 포졸들에게 잡혀 울산 장대에서 교수형을 받고 순교했다. 이렇듯 언양지방은 경신박해와 병인박해로 이해 신자촌이 완전히 파괴됐으며, 박해 후에 피난 갔던 신자들이 다시 안살티로 모여들면서 새로운 신자촌을 형성했다.

1883년 언양지방에서는 박해시대 때부터 많은 순교자를 낸 경상도 남부지방 신앙의 요람에 본당설립을 위한 기성회가 조직됐다. 언양공소 회장인 박유양(가브리엘)과 선필회장인 김문익(안드레아)이 기성회 조직에 앞장섰으며 신자들은 회비를 갹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부산본당 설립과 경남지역 교회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다.

울산에서 최초로 세워진 성당은 언양본당으로 1932년에 본당준공미사를 봉헌했다. 그 후 울산본당이 1956년에 세워지는 등 현재까지 울산지역에는 17개 성당이 세워졌다. 이곳을 중심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표 1> 울산지역 천주교 현황

2000년 12월 31일

구 분	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교당수	17	4	4	4	1	4
교직자수	59	11	20	14	3	11
신도수	58,210	13,107	20,398	16,066	2,998	5,641

자료 : 부산교회사연구소 제공

2. 울산의 성당

울산(언양)은 우리 나라 천주교 교회사에서 동부 영남권 신앙의 요람지요, 성소의 온상지로 알려진 곳이다.

또한 경남에서는 최초의 신앙공동체가 형성됐던 곳으로 박해시대에는 신자들의 피난처였다. 그 후 신교의 자유가 보장되면서부터 산 속에 숨어살던 신자들이 마을로 내려와 여러 공소(公所)를 형성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했다. 이곳에서는 그동안 30여 명의 신부와 30여 명의 수도자가 배출됐다. 1801년 신유박해에서 1866년 병인박해에 이르기까지 신앙인들은 전답과 가산을 버리고 깊고 험한 산골로 숨어들어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도 신앙을 굳게 지켜왔다. 그 결과 20여 명의 순교자와 신앙증거자를 내었고 13개처의 사적지를 남겼다.

언양본당은 이처럼 수많은 신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1790년 오한우(베드로), 김교희(프란치스코) 두 분의 첫 신자로부터 시작돼 210년의 역사를 지니게 됐다. 특


언양성당

히 지금의 언양본당 설립에는 각 공소 및 지역 대표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지방찬조기성회'의 역할이 컸다. 이 조직은 당시 송대공소로 사용하던 박유양(가브리엘) 회장댁과 인접한 천석꾼 김원이의 넓은 가옥을 매입해 공소와 사제관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부를 맞을 준비를 했다.

또 성전건립과 본당부지를 위해 1926년 11월 29일 이 지역의 이장이던 박채용씨 소유의 땅과 그 외 여러 필지를 사들여 현재의 언양본당 터를 마련했다.

초대 본당신부로 부임한 정도평(Emile Beaudevin, M.E.P.: 보드뱅) 신부(1927. 5. 25 1939. 3. 24)는 1922년에 서품을 받고 1926년 한국에 입국, 그 해 12월 5일 안세화(Florian Demange, M.E.P., D.D.: 드망즈) 주교에 의해 언양성당 담당으로 내정됐다. 다음해인 1927년 4월 4일 언양본당 초대 주임신부로 임명받아 5월 14일 정식 부임했다. 정 신부는 5월 25일 본당창설을 알리는 기념미사를 가진 후 성당 건축을 위한 계획을 밝히고, 1928년 언양지방 천주공교협회를 창립해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그 후 정 신부는 두 차례에 걸쳐 스스로 성전 건축 설계를 하고 1928년 5월 25일 성전 및 사제관 신축기공식을 가졌다.

언양성당 신축공사는 서울의 명동성당을 지었던 중국인 기술자들이 와서 진행했으며, 이곳 신자들이 정해진 날에 와서 부역을 했다. 그러나 공사비가 부족해 자주 공사가 중단됐는데 외국으로부터 자금이 들어오면 다시 공사를 재개했다. 그 같은 고초로 해서 공사는 6년에 걸쳐 진행됐다. 공사가 완료된 1932년 그 해 8월 15일 정 신부는 본당준공기념미사를 봉헌했다. 또 1936년 10월 25일 본당 주보인 예수 그리스도왕 축일에 다시 드망즈 안 주교의 주례로 성전 및 사제관 축복식을 거행했다. 이 때 교인과 외교인을 비롯한 수천명이 참석하여 거룩한 예식을 지켜보았다.

1950년 6·25가 터지자 부산지역이 한국 천주교의 중심지가 됐다. 모든 교회활동의 중심무대가 부산으로 옮겨지자 지역의 교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 결과 새로운 본당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1954년부터 대구교구에 속했던 부산·경남 일원을 분리하여 부산교구를 설립하기 위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에 앞서 1951년 대구교구장 최덕홍(요한) 주교가 울산읍에 본당을 설립할 계획으로 언양본당의 이성만(이냐시오) 신부와 상의해 울산읍 복산동에 대지를 매입했다.

또한 순정공소 건물 25평을 옮겨와서 공소로 사용토록 했다. 이 곳은 당시 울산에 주둔한 유엔군의 한국인 군종 윤병희(바오로) 신부가 머물면서 본당 일을 돌보았다. 1952년에는 울산성당의 강당과 사제관의 대지를 매입했다.

제8대 주임인 김재석(요셉) 신부(1953. 12. 12 1955. 10. 20)도 울산 진출을 적극 추진해 1955년 성모상 및 수녀원 부지를 매입하고 성 요셉유치원도 개설했다. 김 신부는 이와 함께 당시 울산에 주둔해 있던 미공군의 헌병 병사의 도움으로 성당(울산성당의 강당)을 3차에 걸쳐 완공했다. 이중배(토마스) 기성회장, 이루치아 전교회장, 권해운(사베리오) 공소회장을 중심으로 전 교우들이 본당설립에 총력을 쏟았다. 마침내 1956년 4월 26일 김재석 신부를 초대 주임으로 복산성당은 언양본당에서 분리 독립했다.

1) 울산지역 성당 현황

<표 2> 울산지역 성당의 소재와 설립일 현황

성당명	주 소	설립일자
언양	울주군언양읍송대리422	1926. 12. 5
복산	중구복산1동 494	1956. 4. 26
월평	남구신정2동 695-2	1975. 1. 29
전하	동구전하1동 302-79	1978. 1. 9
염포	중구양정동484-1	1981. 8. 25
우정	중구우정동389	1983. 2. 4
야음	남구야음2동 591-7	1984. 12. 26
성바오로	동구서부동103-13	1987. 1. 22
병영	중구남외동102	1988. 2. 6
덕신	울주군온산읍덕신리307-9	1990. 2. 1
방어진	동구화정동879-3	1993. 2. 6
옥동	남구옥동 587-7	1993. 2. 6
무거	남구무거2동 1547-3	1995. 2. 4
호계	북구신천동 541-2	1996. 2. 3
삼산	남구삼산동1537-6	1997. 2. 1
범서	울주군범서읍구영리1000-7	1998. 2. 7
남창	울주군온양읍대안리271-3	1998. 10. 17

자료 : 부산교회사연구소 제공

2) 울산지역 성당의 교직자 및 신도수

<표 3> 울산지역 성당의 교직자 및 신도수 현황

구 분	성당명	주임신부	교직자			신도수		
			계	남	여	계	남	여
중구	복산	경훈모	4	2	2	5,436	2,239	3,197
	우정	표중관	4	1	3	4,205	1,803	2,402
	병영	이 민	3	1	2	3,466	1,425	2,041
남구	월평	최영철	5	2	3	5,884	2,400	3,484
	야음	김상호	5	2	3	4,993	2,005	2,988
	옥동	이기정	3	1	2	3,498	1,545	1,953
	무거	이시찬	4	1	3	3,449	1,437	2,012
	삼산	박성태	3	1	2	2,574	1,129	1,445
동구	전하	김용환	4	1	3	3,883	1,611	2,272
	염포	도정호	1	1		1,607	720	887
	성바오로	김명선	5	2	3	6,157	2,673	3,484
	방어진	김성남	4	1	3	4,419	1,850	2,569
북구	호계	최현욱	3	1	2	2,998	1,255	1,743
울주군	언양	이장환	4	1	3	3,004	1,356	1,648
	덕신	신동원	3	1	2	1,014	420	594
	남창	송제호	1	1		656	257	399
	범서	김두유	3	1	2	967	407	560

자료 : 부산교회사연구소 제공

근년에 와서는 성직자의 확보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선교 이외에 사회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

<표 4> 울산지역 사회봉사 활동단체

명 칭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부산교회사연구소부설신앙유물전시관	1990. 12. 4	송기인신부	울주군언양읍송대리
울산가톨릭심리상담실	2000. 8. 17	성정식	남구달동 1253 - 4
성바오로서원	1993. 8. 20	유광수신부	남구신정2동 1204 - 1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00. 9. 14	이현숙수녀	중구성안동성안2택지지구59B 5.6L
울산대학교병원원목실	2000. 3. 1	권선애수녀	동구전하1동 290 - 3
성심청 · 소년나눔터	1998. 11. 3	최영화수녀	남구신정4동 795 - 2
은총의집	2000. 1. 20	이순심수녀	남구야음1동 58
요셉의집(무료급식소)	1990. 4. 9	여명희수녀	중구학성동432 - 402
작은마을가족공동체	1991. 2. 1	방성자	울주군웅촌면은현리덕산138 - 1

자료 : 부산교회사연구소 제공

3. 천주교 의례와 의식[1)]

천주교회에서 집전하는 의례를 전례라고 한다. 전례란 희랍어 리뚤지아(Liturgia)에서 유래된 말로 ‘ 공적 의무나 공적인 일 ’이란 뜻이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구세주께서 천상 성부께 드리는 공적 예배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단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하신 성부께 드리는 공적 예배라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전례가 의미하는 것은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실 때 우리는 그 분과 함께, 그 분을 통해, 그 분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며,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며, 인간의 영혼을 초자연적 생명과 거룩함에로 올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례는 신자들이 생활로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 교회의 본질을 다른 이에게 드러내 보이고 명시함에 큰 도움이 된다.

천주교 전례의 기본체계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등 모두 7성사로 나눠진다.

세례성사는 신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에 결합되어 그리스도교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신자들은 더욱 완전히 교회와 결합하고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할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요, 절정인 성체의 제사(성체성사)에 참여하여 자신을 신적 희생으로 하느님께 바치고,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표현하게 된다.

고해성사를 통해 신도들은 하느님께 끼친 죄의 용서를 자비로우신 하느님께로부터 받으며,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혔던 교회,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써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와 다시 화해하는 것이다. 고해성사는 참회자가 먼저 양심적으로 성찰을 하여 지은 죄를 생각해 내고, 그 죄를 깊이 뉘우치는 통회를 통해 다시는 이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로 정개(定改)하고 나서 고해신부 앞으로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고해신부는 죄를 사해주고 보속(벌칙)을 정해주고 참회자는 받은 보속을 실천함으로써 고해성사는 끝이 난다.

병자성사는 병자들에게 성유를 바르는 사제들의 기도이다. 사제들은 이 의식을 통해 ‘ 병자들을 수난하시고, 희생되신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들의 병고를 덜어주고 그들을 구원하시도록 ’청한다.

1) 문화체육부, 1996,『한국종교의 의식과 예절』.

신품성사는 그를 받은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교회를 사목(司牧)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정(選定)되는 것이다. 이 성사는 그리스도 대리자로서 교회의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신권을 부여하는 성사이다.

혼인성사는 부부의 결합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교회가 부부의 화목과 단란한 가정, 그리고 사회의 기초단위로서의 건전하고 성스러운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는 성사이다. 또한 천주교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통해 10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내용은 이렇다.

첫째 계명 - 하느님을 부인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한다. 둘째 계명 - 하느님 말씀을 함부로 일컫는 것을 금한다. 셋째 계명 - 안식일에 쉬라는 성서 말씀대로 쉬면서 주님을 찬미하는 날로 지내며, 세상 업무나 오락에 열중해서는 안된다. 넷째 계명 -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계명 -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로 이끄는 모두를 금한다. 여섯째 계명 - 가장 귀한 인간의 정조를 보호하는 계율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부부관계 외에 성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곱째 계명 - 남의 물건을 불의하게 주인의 뜻을 거슬러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을 금한다. 여덟째 계명 - 명예를 보호하는 계명으로 거짓말로 남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을 금한다. 아홉째 계명 - 여섯째 계명에서 금한 행동을 마음으로부터 금하는 계명으로 모든 음란한 생각을 멀리한다. 열번째 계명 - 불우하게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탐하는 것을 금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중요한 것은 천주교인의 하루생활이다. 천주교인의 하루생활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아침인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하루생활을 돌이켜 보며 신앙인다운 정신으로 생활을 했는지 반성하며 하느님께 자녀다운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아침과 점심, 저녁시간에 인생의 표본을 보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짧은 기도가 있다. 이를 삼종기도라고 한다.

그 외에 어떤 일의 의미를 성화하기 위해 십자성호를 자주 바친다. 이는 이마와 가슴과 양어깨를 이어서 오른 손으로 십자형을 긋는 행위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뜻을 따른다는 간략한 선서 행동이다.

<신춘희,‘ 울산예술 ’편집장>

제3절 개신교

1. 울산의 개신교

한 세기 전 우리 나라에 들어 온 개신교는 하나의 단일 교단이 아니었다.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오순절 교회(순복음 교회), 안식교 등은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통해 정착한 교단과 교파들로서 이들이 지금까지 한국개신교의 주요 흐름을 형성해 왔다.

여기에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토양 위에서 토착화 된 신학이나 민중신학 같은 새로운 신앙과 신학사조들이 출현함으로써 한국 개신교의 신앙과 의례는 더욱 복잡하고 풍성해 졌다. 우리 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115년 전이다. 1885년(고종 22년) 4월 5일 개신교 선교사인 장로교의 언더우드, 감리교의 아펜젤러가 인천 앞 바다에 상륙한 날과 일치한다.

여기에 비해 기독교는 이미 1800년부터 우리와 관계를 맺어 왔다. 만주에 있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 존 메칸타이어가 서상륜, 이용찬, 김진기, 백홍준 등과 함께 신약성경을 전부를 번역 간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신사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던 이수정은 그곳에서 신앙을 갖게 되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했다. 이 책들은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에 들려 공식적으로 한국 땅을 밟는 역사적 성경책이 됐다.

1884년 7월 28일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 의해 한국에 첫 복음 선교사로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수정이 일본에서 역간한 한국말 성경을 손에 들고 인천항으로 상륙하였다. 그는 1887년 9월 27일 14명의 신자와 예배를 드린 후 백홍준과 서상륜을 장로로 선출하여 한국 최초의 조직 교회 새문안교회를 창립하였다. 그 해 10월에는 최초로 감리교의 정숙교회가 설립됐으며, 부산, 대구, 평양, 의주 등에서도 차례로 교회가 세워졌다. 1903년 한국기독교청년회가 발족했다. 1907년에 우리 나라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대부흥운동(오순절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을 시발로 신생교회의 설립이 확산되고 기도, 말씀연구, 회개, 전도 등으로 이어지는 부흥의 한 모형이 제시됐다. 이들 교회는 선교 외에 교육, 의료, 사회사업 등을 벌였으며, 일제시대에는 자주정신을 고취시켰고, 자주독립을 위해 직·간접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울산에 개신교가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895년 이희대가 중구 병영동에 병영교회


병영교회

를 세우면서부터이다. 병영교회는 1910년 송정교회를 분설했다. 1899년 울주군 두동면 은편리에 은편교회가 세워졌다. 1901년 울주군 두서면에 전읍교회가 세워지고, 1906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제일교회가 발족돼 중구 성남동 71번지에 제일교회를 세웠다. 제일교회는 그 후 남구 신정1동으로 건물을 옮겼다. 1906년 중구 성남동에 울산제일교회, 1909년 삼동면에 보은교회, 언양읍의 동부교회, 반천교회, 상북면의 궁근정교회가 세워졌다. 1910년에는 월평교회, 서생교회, 지당교회 등이 세워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선교활동에 나섰다. 그 뒤를 이어 1910년 안경옥장로가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장검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의 장검교회를 세웠다.

1925년 8월 2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소속의 방어진교회가 설립됐다. 부산 감만동에 소재한 감만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울산병영사람 송정한이 교회설립에 앞장섰다. 경남 노회의 파송을 받은 오형선 장로가 초대 교역자로 시무했다.

1910년 한일합병과 함께 우리 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면서 개신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설교를 할 때도 간섭을 받았고 가정예배를 열 때도 항상 감시를 받았다. 거기다 교회를 폐합시키거나 예배시간 등을 제한해 사실상 예배를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개신교는 구한말 변혁기를 맞은 이 땅에 성경말씀 중심의 정신적 구심점을 형성해 갔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죄의 고백과 영적 생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 성취를 확신하며, 애국과 구국의 일념으로 초창기의 교회를 성장시켜 나간 것이다.

울산에 병영교회와 제일교회가 세워진 이래 100년 전후의 세월이 지났다. 현재 울산에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그리스도교 등 다양한 형태의 종단과 종파가 교리를 통한 종교활동을 펴고 있다.

<표 1> 울산지역 개신교 현황

1999년 12월 31일

구 분	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교당수	428	87	125	81	55	80
교직수	879	191	238	162	87	201
신도수	69,306	14,416	22,219	19,659	6,203	6,809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2. 울산의 개신교 현황

울산의 개신교 현황을 종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울산지역 구 · 군의 종단별 개신교 현황

구 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계	84	120	79	55	79
장로교	64	79	55	47	66
성결교	3	15	6	1	1
감리교	3	8	6	2	2
침례교	6	9	5	3	3
구세군	1				
그리스도교	1				
기타	6	9	7	2	7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한편 이들 교회 중 오래된 교회를 종단별, 설립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울산지역 장로교의 설립연도별 소재 현황

교 회	설립일자	주 소
은편교회	1899. 12. 25	울주군두동면은편리313
천전교회	1901. 7. 20	울주군두동면천전리265
울산제일교회	1906. 2. 5	남구신정1동 366-1
보은교회	1908. 3	울주군삼동면보은리307
방어진제일교회	1925. 8. 2	동구방어동360-10
성산교회	1948. 2. 3	울주군두동면구미리210
장생포교회	1948. 10. 2	남구장생포동87-7
울산침례교회	1949. 3. 1	중구우정동608-4
웅촌교회	1949. 11	울주군웅촌면곡천리330
평리교회	1950. 6. 14	울주군언양읍평리55
천상교회	1950. 10	울주군범서읍천상리631
정자교회	1950. 12. 25	북구정자동136
대현교회	1951. 11. 15	남구야음동471-79
중남교회	1953. 3. 15	울주군상북면가천리660
화전교회	1953. 4. 15	울주군두동면만화리6-8
성혜교회	1953. 5	북구농소읍시례동96
척과교회	1953. 6	울주군법서읍척과리771-10
언양교회	1954. 6. 27	울주군언양읍동부리151-5

교 회	설립일자	주 소
동산교회	1954. 7. 1	남구선암동181-65
강남교회	1958. 3. 5	남구달동885-10
구미교회	1959. 7. 20	울주군두동면구미리1207-2
외와교회	1961. 3. 7	울주군두서면내와리984
울산남교회	1961. 9. 17	남구신정1동 1130-7
길천교회	1962. 2	울주군상북면길천리816
대흥교회	1965. 2. 7	남구신정2동665-3
호계교회	1965. 4	북구농소읍호계동675
신천교회	1965. 4. 1	북구농소읍신천동745-65
작동교회	1967. 4	울주군삼동면작동리924-1
대암교회	1967. 10. 7	남구매암동산 97
상북교회	1968. 3	울주군상북면산전리960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표 4> 울산지역 교회의 종단별 설립연도 및 소재 현황

종 단	교 회	설립일자	주 소
성결교	성광교회	1971. 7. 4	남구신정2동695-1
	시온성결교회	1973. 3. 3	동구일산동461-12
	울산성결교회	1973. 12. 11	남구신정4동 866-3
	서부교회	1974. 3. 1	동구일산동461-12
	울산제일성결교회	1978. 5	남구신정4동 932-123
감리교	울산감리교회	1962. 5. 9	남구야음2동863-2
	성은교회	1974. 7. 18	남구신정1동698-12
	반석교회	1975. 5. 25	동구전하동544-166
	은혜교회	1979	남구신정4동 872-6
침례교	울산침례교회	1949	중구우정동276-10
	울산성서침례교회	1972. 11. 5	남구신정1동568-3
	성일교회	1977. 3. 9	남구신정동1644-6
	대성교회	1977. 4. 3	남구신정동195-8
기독교에대한 하나님의성회	순복음교회	1969. 11 23	중구태화동459-4
	제칠일안식일예수	1978. 3. 5	남구신정동1121-20
	성실순복음교회	1978. 4. 2	동구전하2동635-8
구세군	구세군	1951. 8. 21	중구반구동55-8
그리스트교	그리스트교	1951. 8. 21	중구반구동55-8
	강남교회	1952	남구달동878-4
나사렛	은혜교회	1976. 4. 25	남구신정4동 872-6
오순절	순복음교회	1971. 11. 20	중구태화동30-15

종 단	교 회	설립일자	주 소
전도	울산천부교회	1954. 7. 1	남구신정3동 22 - 25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표 5> 울산지역 교회의 교직자 및 신도수 현황

구 분	종 단	교직자			신도수		
		계	남	여	계	남	여
중구	장로교	142	111	31	1,855	4,795	7,060
	성결교	4	4	0	329	140	189
	감리교	4	4	0	280	97	183
	침례교	14	4	10	690	270	420
	구세군	2	1	1	50	20	30
	그리스교	3	3	0	285	93	192
	기타	8	6	2	827	251	576
남구	장로교	147	128	19	12,033	4,564	7,469
	성결교	30	25	5	1,825	730	1,095
	감리교	14	11	3	2,840	1,121	1,719
	안식교	1	1	0	200	80	120
	침례교	12	11	1	1,530	900	630
	그리스교	6	3	3	140	40	100
	기타	18	11	7	540	275	265
동구	장로교	120	101	19	14,669	5,884	8,785
	성결교	7	7	0	2,211	870	1,341
	침례교	8	8	0	850	350	500
	기타	10	6	4	545	239	306
북구	장로교	79	61	18	5,822	2,226	3,596
	성결교	1	1	0	50	25	25
	감리교	2	2	0	50	15	345
	침례교	3	3	0	230	80	150
	기타	2	2	0	51	24	27
울주군	장로교	147	104	43	6,242	2,198	4,044
	성결교	1	1	0	60	22	38
	감리교	2	2	0	42	10	32
	침례교	3	3	0	95	30	65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3. 울산의 개신교 의례와 의식[1)]

개신교에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분 ‘ 하나님 ’ 뿐이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적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 권능의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 대화하는 인격적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그가‘ 야훼(Yahweh) ’이다.

개신교의 세계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약돼 있다.

“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하나님의 세상 주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의 인간사랑, 멸망에서 벗어난 영생의 약속 등이 이 문장 속에 응집돼 있다. 개신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배워서 실천하고 널리 전파하는 종교이다.

개신교의 최대의례는 예배이다. 예배는 하느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응답하는 일이다.

• 주일 낮 예배 : 예전적 형태를 철저히 갖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전통적인 시간은 주로 오전 11시이며, 교회에 따라 약간씩의 변동이 있다. 예배의 절차도 교단별, 교회별로 세부적 차이가 있다.

• 저녁예배 :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 원하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다. 주일저녁에 헌신예배도 드린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기관의 구성원들이 주님의 일에 삶을 온전히 바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예배순서를 주관한다. 최근 들어서는 예배시간을 오후 3시 무렵으로 바꾸어 저녁 예배가 아닌 오후 예배로 드리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 삼일 예배 ’라고 한다. 예수께서 3일만에 부활하신 의미도 되살리고 주간의 중간이 되는 밤을 택하여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살고 있음을 기도 드린다.

• 대림절 : 성탄일 되기 4주전에 시작되는 대림절은 초기 교회부터 엄격히 지켜왔던 절기이다. 성도들은 예수께서 성탄절에 오신 과거적 사건과 중생의 차원에서 새롭게 주님을 영접한 현재적 의미를 마음에 새긴다.

• 성탄절 : 335년경 로마에서 당시의 동지였던 12월 25일을 탄생일로 지키게 되고 5세기에 이르러 서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 기간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

1) 문화체육부, 1996,『한국종교의 의식과 예절』.

로 삼았다. 이 전통은 오늘의 개신교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사순절 : 부활절을 위하여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준비의 시기이며 주님의 수난과 죽음에 설교의 초점을 맞춘다. 개신교는 교회에 따라 40일 전체를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 참회와 기도 중심의 행사를 갖기도 하지만 대체로 마지막 7일의 고난주간을 뜻깊게 지킨다. 특히 목요일 밤에 성찬식을 거행하고 금요일에는 금식하면서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여 예배드린다.

• 부활절 :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절이 축일 중의 축일이다. 부활절의 날짜는 325년 니케아회의의 결정에 따라 봄의 첫날인 3월 21일 지난 만월 후의 첫 주일, 또는 만월이 주일인 경우 그 다음 주일이 된다. 한국의 개신교는 부활절 새벽이 오면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전통이 있다.

• 송구영신 예배 : 간혹 ‘ 0시 예배 라고 부르기도 하며, 새날을 맞는 한국교회의 참회와 소망을 하나로 묶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12월 31일 밤11시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 저물어 가는 한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린다.

<신춘희,‘ 울산예술 ’편집장>

제4절 기타 종교

1. 천도교

천도교(天道敎)는 포덕(布德) 원년(단기 4193년, 서기 1860년) 4월 5일 경주 용담에서 수운대신사(水雲大神師) 최제우(崔濟遇)의 득도에 의해 창도된 종교이다. 초기에는 동학(東學)이라고 하다가 포덕 46년(1905년) 12월 1일 의암성사 손병희(孫秉熙)에 의해 천도교로 개칭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도교는 온 누리에 한울님의 덕을 펴서 널리 창생을 건지어 보국안민하고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창도됐다. 낡은 선천시대(先天時代)가 무너지고 새로운 후천시대(後天時代)의 새 문화, 새 역사를 열어나가는 개벽운수를 맞이하여 천도교가 창명됐다. 동학이 일어난 조선말기는 유교가 쇠퇴하고 사회가 극도로 부패하여 민생이 도탄에 헤매고 있을 때 서양의 물질문명과 함께 천주교가 들어왔다. 한편으로는 서구열강의 동양침략으로 민심이 불안해지는 등 사회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감록 등의 참서를 믿는가 하면 십승지지(十勝之地)를 찾아가기도 하고 혹은 천주교로 쏠리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성종교는 민심을 향도할 만한 기능을 상실하여 당시 사회는 새로운 문화교체의 대전환을 요청하게 되었다. 마침내 수운대신사께서 경신(1860)년 4월 5일 한울님의 계시로 무극대도(無極大道) 동학을 창건했다. 대신사는 도(道)는 천도(天道)요, 학(學)은 동학(東學)이라 했다. 또한 사람마다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侍天主)의 새로운 신앙과 사람이 곧 한울님이요, 사람을 한울같이 섬겨야 한다는 인내천(人乃天),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진리를 설법했다. 그리고 동경대전(東經大全)과 용담유사(龍潭遺事)를 직접 저술했는데, 이것이 동학 천도교의 기본 경전이다.

1) 천도교 울산시 교구

울산은 천도교(동학)와 아주 관련이 깊은 곳이다. 지리적으로 동학의 발상지인 경주 용담정과 가깝고 득도 전 수운 최제우 대신사가 49일간 수도한 천성산 내원암, 적멸굴과도 인접해 있다. 또한 울산은 대신사의 처가가 있는 곳이며, 득도의 한 계기가 된 을묘천서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최초로 접주제를 실시할 때 ‘ 울산접주 석군호 라고 교서에 실려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울산에 상당한 교세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울산시 중구 유곡동 여시바윗골의 경우 1854년(포덕 전 6년) 10월부터 1859년 10월(포덕 전 1년)까지 5년간 3칸 초옥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머문 곳으로 유명하다. 대신사는 1855년 3월 3일 이곳에서 이인(異人)으로부터 천서를 받고 신비한 체험을 했으며, 천도 대각의 기틀이 되는 49일 수련을 행했다.

그러나 그 이후 불행하게도 천도교 신앙의 맥이 끊겼다 이어졌다 했다. 여기에 대한 흔적은 지역 원로들을 통해 일부나마 확인되고 있다. 의암 손병희성사 때는 울산(울주군 상북면)의 천도교인들이 주축이 돼 언양 3·1운동을 주도했다.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당시 울주군 삼남면)에 천도교가 포교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 9월 이후부터이다. 동면 거리(巨里)에 천도교 울산교구가 설치되어 교인을 포섭하면서 포교가 개시됐다. 초대 교구장에는 최해규(崔海奎)가 취임했다.

3·1운동 당시에는 김교경(金敎慶)을 중심으로 이규장(李圭章), 이규로, 이규천(李圭千), 최해선(崔海璇) 등 열성교도가 뭉쳐 종교활동을 강화했다. 다른 한편 대대적인 민중시위운동이 전개되리라는 예상 하에 교구조직을 다지고 의식 있는 교인들을 포섭해 나갔다. 이러한 때에 고종황제의 인사참배를 위해 서울에 체류 중이던 교구장 김교경이 3·1만세 운동을 목격하고 독립선언문과 국민회보에 실린 기사를 울산교구에 보내왔다. 이에 이규장이 서울로 급파돼 교구장을 만나 거사지시를 받고 언양으로 돌아와 교구중진회의를 열었다.

이규장을 비롯해 최해규, 곽해진, 이규천, 유철순, 이규로, 이무종 등 7인이 회의에 참여했으며, 5월 3일(음력 4월 2일) 언양 독립만세의 거사를 결의했다. 거사 총참획에 이규장, 이무종을 선임했다. 이규장은 조직연락과 동원을, 이무종은 선언문 등사와 태극기 제작을 각각 분담했다. 거사는 5월 3일 언양장터에서 독립만세 소리와 함께 시작됐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운집한 군중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거사 대열에 참가했다. 이 날 거사로 4명이 부상당하고, 23명이 체포 투옥됐으며, 김락수가 고문으로 옥사했다.

한편 포덕 110년대(1960년대) 울산에서는 함경북도에서 단신 월남한 김이관(직암)이 농사짓는 지방민과 영세상인, 그리고 실향민들을 규합, 부산 남부교구를 오가며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또 경북 안강 출신의 이연덕(인암)도 울산직업안내소를 운영하면서 주변 인물을 규합해 부산 영도교구를 오가며 당시 새인간 연맹활동 등 신앙의 맥을 잇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왕래가 없었다.

포덕 120년(1979년) 차굉태(성암)가 천도교 중앙총부를 찾아 당시 교무관장(이중응)을 전교인으로 하여 교화관장(임운길)의 집례로 입교절차를 밟았다. 아울러 울산에 내려와 직암, 인암 두분을 만난 뒤 울산교구를 세우기로 약속했다. 그에 앞서‘ 천

도교 울산시교구 건립추진위원회 '간판을 걸고 위원장에 이연덕, 교화에 김이관, 교무에 차굉태, 경리에 최문환을 첫 임원으로 선출했다. 중구 성남동 제1직업안내소사무실을 임시 교당으로 하여 매 시일식을 봉행했다.

포덕 122년(1981년) 4월 1일 중앙총부로부터 마침내 역사적인 천도교 울산시교구가 인준됐다. 차굉태의 자택을 담보로 총부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 받아 중구 옥교동 소재 건물 5층을 임대해 교구 현판식을 가졌다. 그 후 교당건물 신축 관계로 교구를 다시 중구 성남동 제1직업안내소로 옮겼다.

포덕 125년~127년(1984년 1986년) 중 울산시 교구는 김이관(교구장), 차굉태(교화부장), 이종칠(교무부장), 정보기(경리부장), 이연덕(감사장), 주재석, 박석조(이상 감사)가 이끌었다. 포덕 126년(1985년) 당시 교구장이던 김이관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차굉태가 제3교구장을 맡았다. 청년회(회장 정보기)에서는 회지『청서』1, 2호를 발간하고, 천성산 적멸궁 입구에 천도교' 수운 최제우 득도전 수도장 이란 화강암 입간판을 세웠다. 포덕 127년(1986년) 여름 중구 성남동 제1직업안내소에 있던 교구를 중구 남외동으로 이전했다. 발행이 중단된 교구 월회보(13호)를 속간하고, 목요강좌 개설, 제체수련 실시, 청년조직 등을 강화해 나갔다. 포덕 128년~129년(1987년~1988년)에는 교구임원의 임기를 총부임원의 임기(2년)와 맞추고, 3월 8일 여성회 지부도 조직했다. 이병화가 회장, 최영자가 부회장, 정보수가 부회장을 맡았다.

포덕 130년~131년(1989년~1990년) 울산시 교구는 이연덕(교구장), 박충구(교화), 정보기(교무), 이동완(경리), 김이관(감사장), 차굉태, 김상녀(감사), 이평규(청년회장), 정홍숙(여성회장)등 임원진이 이끌었다. 청년회원이 주축이 돼 천도교 홍보에 주력하면서 숙원이던 교당건물을 짓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성초등학교 뒤쪽 향교 소유부지를 임대해 교당을 조립식으로 신축해 이전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교구건물에 대한 책임을 이연덕 교구장이 지기로 하고 북구 효문동 교당으로 이전했다. 한편 박충구 교화부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교구장의 직무를 대리했다.

포덕 132년(1991년) 3월 22일 시일식후 교구회의를 개최하여 박충암을 교구장으로 하는 등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포덕 133년(1992년) 5월 염포 삼거리 근처 신축건물 2층으로 교당건물을 이전했다. 포덕 137년(1996년)부터 연7회 기준으로 자체 합동수련회를 매월 1회씩(매월 1 7일까지) 강화했다.

울산시교구는 현재 교인 모두가 교세를 확장하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한울님의 뜻을 헤아려 수도에 정진하고 있다.

2) 천도교의 신앙대상과 경전



언양 작천정 인내천 바위

천도교의 신앙대상은 한울님이다. 한울님을 믿되 내 몸에 모시고 있다고 믿으며, 부모님 같이 정성 · 공경 ·믿음으로 섬긴다. 그래서 시천주 신앙이라고 하고 인내천(人乃天)이라고 한다. 인내천은 천도교의 종지이다. 인내천은 ' 사람이 곧 하늘 '이라는 뜻이다. 천도교의 목적은 개인적으로 도성덕립(道成德立), 즉 자아완성 하는데 있고, 사회적으로 보국안민(輔國安民), 포덕천하(布德天下), 광제창생(廣濟蒼生), 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에 있다. 한마디로 사람마다 한울사람이 되어 하늘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천도교의 경전으로는 대선사가 직접 지으신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있으며, 제2,3세 교조가 설법하신 것을 모아 수록한 해월신사법설과 의암성사법설이 있다. 동경대전은 대신사의 도에 대한 가르침이나 종교적 수행을 담은 경편 등과 많은 시문들로 구성돼 있으며 동학의 요체와 천도를 밝히고 있다. 내용은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불연기연의 4편과 주문, 팔절 등 각종 시구들로 순 한문본으로 되어 있다. 용담유사는 가사체의 형식으로 동학의 교의를 보다 보편적으로 폭넓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선사의 가르침을 노래로 지은 것이다. 교훈가, 안심가 등 8편과 부록으로 순 한글로 되어 있다.

3) 천도교의 의례와 의식[1)]

천도교에서는 집회장소를 교당(敎堂) 또는 성화실이라고 한다. 인사할 때는 좌석이 의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 채로 경건한 자세로 허리를 구부리고 절을 한다. 의자가 없는 방에서는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출입할 때는 참례원들에게 공동으로 인사하며 반드시 한울님께 고하는 심고(心告)를 행한다.

천도교 의절의 기본정신은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人乃天), 수심정기(守心正氣), 성경신(誠敬信), 이신환성(以身換性), 천지부모(天地父母), 사인여천(事人如天), 부화

1) 문화체육부, 1996,『한국종교의 의식과 예절』.

부순(夫和婦順), 부인수도(婦人修道)로 나눈다.

천도교의 종교력에 따른 행사의례는 다음과 같다.

• 천일기념식(4월5일 11시) : 포덕1년4월5일은대신사께서한울님으로부터오심즉여심의계시를받아득도한날로' 천일기념일 이라고하며, 매년기념식을거행한다.

• 지일기념식(8월 14일 11시) : 포덕 4년 8월 14일 해월선사께서 대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은 날로' 지일기념일 라고 하며, 매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 인일기념식(12월 24일 11시) : 포덕 38년 12월 24일은 의암성사께서 해월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 받은 날로' 인일기념일 이라고 하며 매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 도일기념식(1월 18일 11시) : 포덕 49년 1월 18일 춘암성사께서 의암성사로부터 대도주직을 승통받은 날로' 도일기념일 이라고 하며 매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 현도기념식(12월 1일 11시) : 포덕 12월 1일은 의암성사께서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한 날로' 현도기념일 이라고 하며, 포덕의 날로 정해 기념식과 포덕선전 활동을 전개한다.

• 3 · 1절 기념식(3월 1일 11시) : 포덕 60년(기미) 3월 1일은 천도교가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날로 이날을 기리기 위해 매년 3 · 1절 기념식을 거행한다.

• 동학혁명기념식(3월 21일 11시) : 포덕 35년 3월 21일은 동학군이 탐관오리의 학정에 항거하여 전라도 고부에서 동학의 접주 전봉준장군의 지휘 아래 제폭구민(除暴救民), 척양척외(斥洋斥倭)의 깃발을 높이 들고 총궐기한 날로 이날에 기념식을 거행한다.

• 탄신기도식 : 대신사를 위시하여 해월신사, 의암성사, 춘암성사의 생신을 경축하는 기도식으로 이날은 전체 교도가 자택에서 오후 9시경에 기도식을 거행한다. 대신사 탄신일(포덕 전 36년 10월 28일), 해월신사 탄신일(포덕 전 33년 3월 21일), 의암성사 탄신일(포덕 2년 4월 8일), 춘암성사 탄신일(2월 1일 포덕 전 2년).

• 환원기도식 : 대신사 순도를 위시하여 해월신사 순도, 의암성사 환원, 춘암성사 환원을 추모하는 기도식으로 오후 9시경 자택에서 거행한다. 대신사 순도일(3월 10일 포덕 5년), 해월신사 순도일(포덕 39년 6월 2일), 의암성사 환원일(포덕 63년 5월 19일), 춘암상사 환원일(포덕 81년 4월 3일).

이밖에 매년 1월 1일 11시경에 하는 신년배하식 등이 있다.

2. 기타 종교

이 중 원불교는 1916년 박중빈(호 소태산)이 일원상의 진리를 깨닫고 창조한 종교

이다. 소태산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 ○ ’으로 그려 상징하고,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응보의 이치가 서로 바탕하였다고 했다. 이 일원상의 진리는 모든 존재를 서로 가능케 하는 큰 힘과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생명의 관계를‘ 은(恩) 이라고 한다. 인간은 큰 은혜를 자각하여 항상 감사하고 보은한다면 진리의 위력을 얻게 되고, 자신은 언제나 상생상화하는 기운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원불교의 경전은 9종교서 및 그 밖의 교서로 나누어져 있다. 9종교서는 정전대종경, 불조요경, 예진, 성가, 정산종사법어, 세전, 원불교교사, 원불교교헌을말한다.

통일교는 1954년 문선명에 의해 서울에서 창립됐다. 유일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아버지로 믿고, 신구약 성서를 경전으로 믿는 것을 신앙의 신조로 삼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국에 재림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점이다. 통일교의 교리서인 원리강론의 경우 창조원리와 타락론, 복귀원리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세부분 외에도 인류 역사종말론과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부활론, 예정론, 기독론, 재림론등을 다루고 있다.

이밖에 울산지역에는 대종교, 미륵대도, 한불교천지종, 천존회, 한얼교, 일관도, 갱정유도, 수운교,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증인 등이 있다.

<표 1> 울산지역 기타 종교 현황

종 교	주 소	창설일
원불교울산교당	중구교동 209 - 4	1947. 8. 26
통일교회	동구전하2동 652 - 8	1970
울산통일교회	남구신정1동 518 - 18	1975. 8. 13
대한천리교울산교회	중구반구동 43 - 11	1983. 4. 3
대순진리회울산회관	중구태화동 170 - 3	1989. 12. 15
원불교남울산교당	남구신정1동 1254 - 2	1981. 2. 8
하나님의교회	남구신정4동 870 - 7	1988. 10
천리혜성교회	남구신정4동 870 - 7	1963
한국천부교울산교회	남구신정동 22 - 55	1954. 7. 1
안식교방어진교회	동구전하동 690 - 12	1983. 2. 10
몰몬교밀알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	남구신정2동 652	1975. 7. 3
여호와의증인왕국회관	중구복산동 40 - 21	1983. 7. 1

자료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신춘희,‘ 울산예술 ’편집장>